

## 미래 사회의 글쓰기와 문학, 혹은 문학교육

송희복\*

### || 차례 ||

1. 실마리 : 문학 위기의 비평적 담론
2. 미래 사회의 글쓰기와 문학의 향방
3. 작가의 죽음에 반응하는 관점의 변화
4. 문학교육의 향방에 대한 한 견해
5. 마무리: 약론(略論) 및 전망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학위기론의 바탕 위에서 미래 사회의 글쓰기와 문학, 혹은 문학교육에 대한 견해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자는데 취지를 두었다. 연구의 진행 과정은, 목차로 제시된 바와 같이, 미래 사회의 글쓰기와 문학의 향방, 작가의 죽음에 반응하는 관점의 변화, 문학교육의 향방에 대한 한 견해 순으로 밝혔다.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 있어서 글쓰기나 문학의 향방은, 작가의 권위가 도전을 받고 있다고 해도, 오늘날 글쓰기의 환경과 문학의 입지가 변화된 것이지, 글쓰기가 쇠운머리에 달하거나 문학이 죽음에 직면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글쓰기의 문화도, 문학의 근대적인 제도 및 관습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비전문의 젊은 작가들이 웹 사이트에 환상담이나 SF 등과 같은 장르문학의 텍스트를 올려 주목을 받으면 놀라울 정도의 독자층을 형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교육을 통해서 문학 위상이 회복된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다. 문학에의 위기 의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교육의 영향력이 앞으로도 행하게 되겠지만 그 영향력이 문제가 아니라 문학이 가지고 있는 형성력의 쇠퇴가 문제라고 본 견해가 있고, 학생들의 향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선 그들에게 좋은 작품을 많이 읽혀야 감식력도 늘어나고 안목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핵심어** : 미래 사회, 글쓰기, 문학의 위기, 작가의 죽음, 문학교육

\*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hbsong@cue.ac.kr

### 1. 서론 : 문학 위기의 비평적 담론

문학은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남아 있다. 구텐베르크의 비가(悲歌)를 노래하는 문명비판의 전망이 유명처럼 떠돌아다니고 있어도, 소위 비판적인 습지 너머에 문학이라는 이름의 존재 의미와 당위성이 빛을 발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문학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문학 행위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이 빛이 서쪽 하늘에 저무는 잔광인지 아니면 새로 떠오르는 여명인지는 이를 생각하는 사람마다의 마음속에 달려 있을 뿐이다.

문학의 위기에 대한 비평적 담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엄밀하게 따지면, 시대마다 문학위기론이 등장했다. 그 시점이 언제부터냐 하는 것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물론 다를 수 있지만, 필자는 대체로 1960년대부터라고 본다.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존 바스(John Barth)는 1967년에 발표한 비평적 에세이인 「고갈의 문학(The Literature of Exhaustion)」에서 문학의 위기에 대한 원인을 두고 문학적인 ‘힘’의 고갈에서 비롯한다고 보았다. 이때 힘이란, 두말할 나위도 없이 형식과 상상력의 새로움을 말할 것이다. 더 이상 형식이 새롭지 않고, 상상력도 새롭지 않으면, 문학은 어쩔 수 없이 위기를 맞이한다는 거다.

소설의 새로움은 두 세기를 채 넘기지 못했다. 19세기에 전성기를 구가하던 근대 소설은 근대 소설은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새롭고 활기차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르주아적 관습의 소산으로 여겨졌다. 어느덧 상황은 소설의 융성에서 소설의 위기로 (……) 바뀌고 있었다.<sup>1)</sup>

존 바스의 문학위기론은 구체적으로 소설위기론을 가리킨다. 그는 한때 새

1) 박인찬, 『소설의 죽음 이후 : 최근미국소설론』,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2008, 12면.

로웠던 소설의 형식이 종언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역설적이게도 기존의 소설 형식을 재활용하고 재진유하는 방식으로 소설의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다. 이를테면 새롭게 않는 새로움의 소설, 말하자면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을 개발시켰던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소위 ‘포스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그는 ‘패러디적 모방과 차용, 절충’이라는 새롭게 않는 새로움이란 역설을 추구했었다.<sup>2)</sup>

이렇게 된 데는 소설이 위기에 처했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다. 인쇄술의 발명 이후에 서책이 대중화되고 문자해독능력을 통해 지적 평등화의 지향을 이룩하는 데 적잖이 기여한 리얼리즘 소설은 어지간히 공공의 이익을 가져다주었지만, 모더니즘 소설이 점차 개아(個我)의 자의식이란 고독의 성채(城砦)에 집거해감으로써 다소 과장된 표현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이르러 문학의 위기에 대한 비평적 담론이 이론적 내지 실제적으로 심화되기 시작했다. 김옥동의 『문학의 위기』(1993)가 대표적인 성과로 손꼽힌다. 그는 문학이 그 시대의 위기의식을 떠나서 결코 존재한 적이 없으며, 각각의 시대에 팽배해 있던 위기를 반영해 왔음을 전제로 삼았다. 그는 문학의 위기를 논의하는 것이 문학을 폄하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전통적인 문학의 한계를 진지하게 점검해보는 것이야말로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에게 있어서 문학적 위기의 요체는 소수 엘리트 특권층만이 향유하던 고답적이고 귀족적인 문학은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을 지니지 못하다는 데 있다.<sup>3)</sup>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학위기론의 바탕 위에서 미래 사회의 글쓰기와 문학, 혹은 문학교육에 대한 견해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자는 데 취지를 두고자 한다. 연구의 진행 과정은, 목차로 제시된 바와 같이, 미래 사회의 글쓰기와 문학의 향방, 작가의 죽음에 반응하는 관점의 변화, 문학교육의 향방에 대한 견해 순으로 밝아 나아갈 것이다. 연구가 마무리할 국면에 이르면, 필자의 논의를 요약하면서 연구에 있어서 앞으로의 전망을 마지막으로 밝히려 한다.

2) 같은 책, 16~17면, 참고.

3) 김옥동, 『문학의 위기』, 문예출판사, 1993, 8~11면, 참고.

## 2. 미래 사회의 글쓰기와 문학의 향방

개별적인 인간의 창의성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적인 조건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때가 내게 있다면, 나는 인간이 책읽기와 글쓰기를 통해 느낌과 생각을 정리하고 개성과 인격을 이루고, 또한 인생관과 세계관을 형성해 간다고 생각한다. 글쓰기는 일종의 행위이다. 흔히 말해 이를 두고 문자 행위라고 할 수 있었는데 더 구체적으로 의미를 확장할 것 같으면 다음 네 가지의 표현을 통해 그 성격을 부여할 수 있겠다.

우선적으로 말해, 글쓰기는 의미 구성의 행위이다.

글을 쓰는 사람은 글을 써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과 이를 통해 받아들인 지식과 정보를 반영하고, 또 자신이 애초에 지녔던 의미를 보완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이런 점에서 글쓰기는 다름 아니라 인생과 세계의 의미를 구성하는 행위로 간주되기도 한다. 농경과 산업의 시대에는 글을 통한 의사소통의 능력인 소위 문식(文識)의 정도가 인생과 세계의 의미를 깊게 이해하고, 날카롭게 비판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척도가 되었었다. 물론 이즈음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선 이 척도가 적잖이 바뀌어가고 있다.

두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면, 담론의 성격과 범주를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대할 때, 그것은 글쓰기와 글 사이에 놓인 의미 협상의 행위이기도 하다. 이때 글 쓰는 이는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규칙 준수의 행위를 무엇보다 준수해야 한다. 문학적이라기보다 실용적인 글쓰기의 경우가 물론 언어의 사회적인 규약을 중시한다고 하겠다.

셋째로는, 글쓰기는 자기반성의 절차적 행위이다. 글을 쓰는 이는 글을 써가는 과정에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의 삶이 의미와 의의를 지니는가, 어떻게 살아야 정녕 가치가 있는가 하는 자기 정체성의 물음을 끊임없이 던진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통해 완성된 한 편의 글은 글 쓰는 이의 반성적 사유의 행위가 반영된 거울과 같은 것이다. 매일 다량의 정보가 홍수처럼 혼탁하

게 쏟아지고 아무데도 쓸모없는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세상 속에서, 글쓰기를 통해 형성하는 반성하는 자아, 생각하는 자아는 인간의 주체적인 존엄성을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격을 부여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즉, 글쓰기는 단순한 문자 활동이 아니라 문화 활동에 동참하는 행위이다. 글쓰기의 경험을 통해 삶의 기록은 축적된다. 이것이 계승되면서 하나의 문화재로 인식되고 자각되면서 하나의 문화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문자 활동과 문화 활동은 한 갈래의 연속선상에 놓인다.

문제의 상황을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무언가를 창출해낼 수 있는 자질이나 능력을 갖추는 것을 가리켜 창의성이라고 한다. 글쓰기는 교육 현장에서 창의성을 계발하게 하는 수단과 도구로 잘 활용된다. 문제는 개별적인 교사의 그것에 대한 의욕과 믿음과 기획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남보다 나은 것보다 남과 다른 것이 요구되고 있는 디지털 정보의 경쟁 사회에서는 글쓰기가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 복잡한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입문의 열쇠처럼 긴요해지고 있다.

요즈음에 이르러선 글쓰기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21세기는 20세기와 분명히 달라졌다. 매체를 인식하는 능력의 하나로서 한때 존재해 왔던 문식성의 변화에 따라, 글쓰기를 통한 반성적 사유의 자아 관념은 희석되어 가고 있으며, 대신에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파일 등의 기기를 이용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려는 새로운 세대에게는 ‘일렉터러시’와 공존하는 변형된 ‘리터러시’가 요구되는 시대에 이미 들어섰다. 심지어는 서책의 형태가 사라질 것이라는 극단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맥스 화이트비(Max Whiteby)의 『즉석의 기록 보관소(The Instant Archive)』(1987)에 따르면, 이런 미래의 정경이 그려져 있다.

미래의 도서관 조희실에는 책이 없다. 그 대신 도서관의 방대한 자료들은 회전식 광학 마그네틱 디스크 속에 디지털 형태로 담겨져 전 세계의 여는 상점에 진열되어 있다. 당신은 전화 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 퍼스널 컴퓨터와 일반 전화선을 통해 텍스트를 전송해주는, 모뎀이라고 부르는 비교적 값싼 부속

품만 필요할 뿐이다.<sup>4)</sup>

이 급변하는 상황을 상정해본다면 아무래도 글쓰기의 환경도 적잖이 변화될 것이라고 보인다. 이 급변의 환경으로 인해 글쓰기의 존재방식도 적잖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불 보듯이 변하다. 사실은 이러한 극단의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글쓰기의 환경이 자잘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 저간의 사정인 듯싶다.

그런데 글쓰기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해도 글쓰기의 전통적인 엄숙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해도 글쓰기의 정체성과 유효성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종이가 구겨져가고 수기(手記)의 관습이 사라진 이 시점에도, 왜 글쓰기인가? 학교에서의 글쓰기는 우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인간이 인간답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학습의 도구로 여전히 유효하다. 글쓰기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 의식을 고양시키며 인간 정신을 풍부하게 하고 내면생활을 강화하기<sup>5)</sup> 때문이 아닐까? 또한 글쓰기는 낱말의 사람들에게 직업에 종사하는 일과 무관치 아니할 것이며, 더욱이 그것은 경쟁 사회의 생존 전략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도 적잖이 의사소통과 문제해결의 과정임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글쓰기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실용문 쓰기와 문학창작으로 나누어진다. 실용문이 기능주의의 측면에서 언어의 쓰임과 사회적인 규약을 중시하는 데 비해, 문학 작품은 현실을 변형하고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허구와 상상력의 창조적인 능력을 통해 제 나름대로의 삶의 진실에 도달하려고 애를 쓴다. 학교 교육에서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중시하거나, 다만 아쉬운 점은 문학창작의 지도에 관련해 교사의 전문성 요구가 제도적으로 따라주지 못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문학의 가치도 시대에 따라 많은 변전을 거쳐 왔다.

장구한 세월에 걸쳐,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의 시인추방론에서 19세기의 말인 톨스토이의 인도주의론에 이르기까지 문학은 선악의 문제에 매달렸다. 선

4) 엘빈 커먼, 최인자 옮김, 『문학의 죽음』, 문학동네, 1999, 157면, 재인용.

5) 유종호, 『문학은 끝나는가?』, 세창출판사, 2015, 56면, 참고.

과 악의 대립에서 악에 의해 추방된 선이 마침내 귀환하게 되는, 이른바 시적 정의의 구조를 보여주는 게 가장 일반적인 문학의 성격이었다.

그런데 18세기의 낭만주의 사조가 출현하고 이것이 19세기에 이르러 미적 근대성의 개념을 정립하면서부터 문학은 선악보다 미추의 문제로 흘러가는 경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미와 추의 대립 문제는 문학과 예술의 미학적인 성과로 확산되어 갔다. 추(醜)는 ‘추하다’ 라는 의미에서 미의 직접적인 상대 개념으로 규정되기보다,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이니 ‘추의 미학’ 이니 하는 개념에서도 살펴 볼 수 있듯이, 독자적인 존재 의미를 가지는, 그 나름의 미학적인 가치개념이었다. 20세기의 소설 가운데 제임스 조이스, 마르셀 프루스트, 프란츠 카프카 등의 작가가 남긴 소설은 언어의 존재(론)적인 가능성을 극단으로 몰고 간 작품들이었다. 이들은 언어의 밀실 속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대상과 사유의 관계성을 단절하려고 애를 썼다. 소설사에서 미적 근대성의 한 성취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들 작가 이후에는 문학의 무대에 이념의 문제가 선풍적으로 휩쓸고 왔다. 굳이 이념이 아니라고 해도 민주주의의 광장에 문학의 사회참여와 관련해 정치적인 시비거리에 휘말려 들기도 했다. 문학의 문제의식은 선악에서 미추로, 또 미추에서 시비로 옮겨져 갔다.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 있어서 글쓰기나 문학의 향방은 어떻게 점쳐지는가? 사이버공간에서 오픈 문화의 바람이 거세어짐으로써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글쓰기의 엄숙성이 사라져가고 있다. 본디 작가(author)와 권위(authority)는 동계의 어원에서 비롯되었는데, 지금은 작가의 권위가 도전을 받고 있다. 오늘날은 글쓰기의 환경과 문학의 입지가 변화된 것이지, 글쓰기가 쇠운머리에 달하거나 문학이 죽음에 직면한 것은 결코 아니다.

종래에는 예술이 자연을 모방하고 비현실이 현실을 모방했다. 지금은 장 보드리야르의 말처럼 현실이 비현실을 창조하는 시뮬라크(simulacre)의 시대다. 가짜와 진짜, 가상과 현실이 구별되지 않는 시대다. 최근에 어느 화가는 조화와 생화를 섞어놓고 그린 그림들을 전시된 바 있다. 이처럼 가상현실이란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혹은, 보이게 하는) 현실이다.

글쓰기도 문학도 선악과 미추와 시비의 문제가 아닌 곡직(曲直)의 문제로

향하고 있다. 왜곡과 정직, 거짓과 진실이 힘을 겨루는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그 광장에 범람했던 가짜 뉴스와 최근에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는 드루킹 사건은 시비를 넘어서 곡직을 가리려는 날카로운 쟁점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가상과 현실은 정녕 분리되지 않는다. 왜곡과 정직을 가리려는 인간적인 글쓰기-문학의 노력이 힘을 잃어가는 순간부터 가짜가 진짜를, 가상이 현실을, 거짓이 진실을 누르고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글쓰기와 문학은 그래서 미래 사회에 있어서도 유효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 3. 작가의 죽음에 반응하는 관점의 변화

서구의 경우에 있어서 근대적인 맥락과 의미에서 말해지는 작가의 개념이 우리보다는 적어도 한 세기 정도 앞선 것으로 보인다. 작가를 어렵פות이 중시한 시기는 글 쓰는 이의 감정, 상상력, 표현의 내발성 등을 중시하던 18세기 낭만주의 시대였음이 확실시된다. 낭만주의의 미학적 근대성은 작가가 단순히 글쓰기의 주체요 작품의 원인적 조건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넘어 이를 창조적 영감과 천재적 재능을 소유한 특별한 창작자로 격상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18세기의 낭만주의를 계승한 19세기 서구 문학은 창작자의 표현 개념을 더욱 중시함으로써 시대적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작가의 탄생을 이룬 것으로 여겨진다.

이 대목에서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작가의 개념이 출판문화의 진보와 긴밀히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다. 근대 이전에도 작가가 있었다. 그러나 근대 이전의 작가는 직업적인 의미로서의 작가가 아니라 문학사적인 대가로서의 작가였다.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음유시인에 의해 구연되었고, 셰익스피어의 극시는 무대 위에서 상연되었다. 인쇄물 이전에도 서책 문화가 존재했고 저자의 개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근대의 출판문화와 견줄 바 없었다. 서책의 생산, 유통, 소비의 구조는 허약했고, 저자에게 기대되는 창작성의 정도가 낮았다.

작가는 한마디로 말해 19세기의 개념이었다. 근대 이전에도 작가의 개념이 있었다면, 모사자, 편집자, 주석자, 논평자를 말한다. 모사자는 기존의 텍스트를 베끼는 데 능숙한 사람을 가리킨다. 창작의 미학적 기준이 가장 낮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 남아 있지 아니한 수많은 무명의 모사자들이 사실상 최초의 작가들이었다. 이 모사자의 개념을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스크립터(scripter)’라고 말할 수 있다. 모사자로서의 작가의 전통은 지금도 남아 있다. 흔히 방송 작가를 두고 스크립터라고 말하는데, 필자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한다. 짐작하건대 일회용 대본이 지닌 텍스트성의 한계에 기인한 용어가 아닌가 한다. 역사를 기술하는 저자의 전통은 대부분 편집자로서의 작가에 포함된다. 헤로도토스, 사마천, 김부식의 등의 역사서술자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사료를 바탕으로 과거의 일을 재편하였던 것이다. 이들의 글쓰기는 일종의 편찬자로서의 글쓰기라는 사실에 달리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다. 중국 남송 시대의 주희는 고대 중국의 권위적인 글쓰기의 한 결과물인 사서(四書)를 놓고 제자들과 토론하면서 방대한 주석을 남겼다. 이것이 성취한 사상의 체계가 주자학(성리학)으로 불리면서 우리나라 조선의 치국 이데올로기로 기능을 수행했다. 다시 말하면 주희는 주석자로서의 대표적인 작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인문학 분야에 있어서 주석자로서의 작가의 경우는 서양에서도 무수히 있으리라고 본다. 이 밖에도 논평적인 저술물의 전통과 함께 우리나라에는 문학적인 논평자로서의 작가의 맥이 뚜렷하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서포만필』을 저술한 김만중이다. 특히 정약용은 필사본 15권 5책의 『시경강의』(1808)를 남겼는데 이것은 그가 논평자로서의 작가의 능력을 유감 없이 발휘한 사례이다.

창작자로서의 작가의 개념이 미학적인 완결성을 가지게 된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 이 창작자는 일종의 창조자(creator)이다. 앞에서 말한 전근대적인 개념의 작가와 달리 창작의 미학적인 완성도가 가장 높았다. 이 경우의 작가는 신처럼 전지전능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작가(author)와 권위(authority)라는 단어가 동계의 어원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작가는 일종의 권위의 화신으로 독자를 군림하고 있었다. 한때 작가 중에서도 (괴테나 톨스토이 등과 같은) 대가는 민중을 계도하는 사회의 지도자적

인 위치에 놓여 있었다.

전통적인 의미의 작가관을 보여주는 근래의 사례를 보자. 소설가 제임스 A. 미치너는 자신의 자전적 성격의 산문집인 『작가는 왜 쓰는가(Literary Reflections)』(1993)를 상정한 바 있었는데 이 책의 서문에 작가가 글을 쓰는 이유를 작품이 사람들의 인생에 뜻있게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또 그는 작가(소설가)가 외롭게 인간 경험을 탐구하는 데서 위대한 작품(소설)을 얻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의 작가의 예를 플로베르, 도스토예프스키, 제인 오스틴, 투르게네프, 헨리 제임스 등으로 꼽았다.<sup>6)</sup> 이들은 모두 19세기의 작가들이다. 미치너는 이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작가의 상을 투사하고 있는 것이다.

소설가가 작가의 대명사로 대접을 받게 된 것은 러시아의 경우에 1864년부터라고 잘 알려져 있다. 이 해는 신문이 사회적인 파급 효과의 면에서 종래의 잡지를 압도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저널리즘의 확산은 문학 시장의 판도도 바꾸어버렸다. 연재의 소설의 장점은 독자가 스토리를 진행형으로 소비할 수 있다는 데 있었고, 그리하여 소설은 뉴스처럼 실시간으로 당대의 독자에게 찾아왔던 것이다. 저널리즘의 호황을 가장 잘 이용한 이는 도스토예프스키였다. 그는 시대의 조류를 읽으면서 소설을 써갔다.<sup>7)</sup>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배경 및 문화 상황 속에서 19세기에 근대의 작가 개념이 확립되어갔고, 그럼으로써 작가는 권위 있는 창조자의 반열에, 전지전능한 신의 위치에 오르게 된 셈이었다.

작가가 바람직한 인간과 세계와 문화의 창조에 기여한다는 이를테면 긍정적인 작가관도 19세기를 통해 만들어져 갔다. 이것의 담론은 오늘날까지도 유효하게 되풀이되고 있다.

우리나라 소설가 오정희 역시 10년 전 제1회 동아시아 문학 포럼에서 소설 창작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였는데, 발제문 「나는 무엇을, 누구를 위

6) 제임스 A. 미치너 지음, 이종인 옮김, 『작가는 왜 쓰는가』, 예담, 2008, 95면, 참고.

7) 석영주, 「맵핑 도스토예프스키 (18)」, 『S Magazine』, 583호, 5. 12~13, 15~17면, 참고.

하여, 어떻게 쓰는가」(2008)을 통해, 작가의 개념을 전통의 맥락과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

……나방이 불에 다가가듯 자석의 다른 극이 서로를 끌어당기듯 글쓰기라는 어떤 이끌림, 매혹에 사로잡혀 자신을 표현하고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작가마다 독특한 문학관과 문학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문학이 작가 자신의 운명의 개별성과 개성의 소산이기 때문일 것이다.

작가란 글을 쓰는 것으로 적극적 능동적으로 세상에, 생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즉 언어를 통해 한 세계의 창조를 꿈꾸고 우리는 누구이며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또한 가능하다면 어떻게 불화와 비극에 대응해야 하는지를 궁구한다.<sup>8)</sup>

작가는 소위 ‘존재의 집’인 언어를 통해 글쓰기를 부단히 수행하면서 글 쓰는 주체의 삶과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소설가 오정희에 의하면, 작가는 인간의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보다는 불화와 비극에 대응하는 축수를 지닌 자이다. 생의 심연에 갈랐은 깊은 의미를 궁구하는 자, 어쩌면 작가는 단순한 문장가라기보다 세계의 의미나 그 관계망을 성찰하는 사색가인지도 모른다.

19세기에 조성된 근대의 작가관, 예를 들면 일종의 권위 있는 창조자, 전지전능한 신의 위치에 오른 자, 바람직한 인간과 세계와 문화의 창조에 기여하는 자라는 종래의 그런 관념<sup>9)</sup>은 20세기의 초현실주의자와 구조주의자들에 의해 해체와 전복의 과정을 겪는다. 말하자면, 작가의 권위는 위기를 맞게 된다.

초현실주의자들은 주지하듯이 자동기술법이란 글쓰기 기법을 고안했다. 글쓰기는 작가의 정신적인 몫이라기보다 수공(手工)에 의해 맡겨진 하나의 기

8) 황석영 외, 『문학의 미래』, 중앙books, 2009, 279면.

9) 시인은 희랍어 ‘포에인(poiein)’에서, 픽션은 라틴어 ‘픽티오(fictio)’에서 유래했다. 이 말들은 ‘만들다’와 ‘창조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작가와 작품의 창조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작가의 아우라가 존재하는 신성한 경계를 침범하는 불경을 저지르는 데 그들은 적잖이 기여했다.

한편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가 ‘작가의 죽음’을 선언한 경우는 무엇보다 유명하다. 이 ‘작가의 죽음’은 한때 ‘저자의 죽음’으로 번역되어 소개되었었다. 작가라고 하면, 문학적인 작가와 비문학적인 작가로 나누어진다. 이 두 개념을 한꺼번에 포괄할 수 있는 단어가 다름 아닌 단어가 ‘저자’이기 때문에 ‘저자의 죽음’이란 번역어로 먼저 각인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는 「작가(혹은, 저자)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된 비평적인 산문에서, 작가야말로 실증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가 절정에 이른 근대의 개념이란 사실을 먼저 전제로 삼았다. 낱낱의 작품에는 개별적인 작가의 창작적인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20세기의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는 작가의 독창성이 중시되던 낭만주의 시대를 지났기 때문에 글쓰기에 있어서 모방의 관행이 어느 정도 수용되어 혼성모방의 기법이 도입되기에 이른다. 작품이라는 종래의 개념은 이를테면 ‘텍스트’라는 신개념으로 대체된다. 텍스트란 신개념은 작가의 존재감이 적어 사라지는 하나의 징후로 이해되지 않을 수 없다.

텍스트의 구조는 스타킹의 실처럼 모든 점과 수준에 걸쳐 전개되지만 그것뿐이다. 말하자면 구조의 표면만 존재하지 심층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글쓰기는 의미를 설정하면서 동시에 의미를 체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끊임없이 그 의미를 소멸시킨다.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문학은 아니 이제부터는 글쓰기라고 부르는 게 더욱 어울릴 문학은 텍스트이며, 텍스트로서의 세계에 어떤 궁극적인 비밀스러운 의미를 부여하기를 거절함으로써(……) 글 쓰기의 총체적인 존재가 폭로된다. 곧 텍스트는 다중적인 글쓰기로 구성되며, 여러 문학에서 인용되어 대화 · 페러디 · 논쟁이라는 상호관계 속으로 들어간다.<sup>10)</sup>

롤랑 바르트는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서로 교호하는 인용문들의 직물이

10) 롤랑 바르트, 이승훈 옮김, 「저자의 죽음」, 계간 『현대시사상』, 1993년, 겨울, 69~70면.

라고 보았다. 기호들의 직물인 텍스트란, 기표들이 형성하는 은하계이다. 이 무한 공간 속에서 의미의 해석 역시 무한하게 뻗어간다. 이때 작가는 글쓰기의 권능이 부여된 전지전능한 창조자에서 한낱 필사본을 베끼는 모사자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작가의 죽음이란 희생의 대가로 마침내 얻은 것은 독자의 탄생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19세기가 작가가 탄생한 시대라면, 20세기는 독자가 탄생한 시대이다.

미셸 푸코도 「저자란 무엇인가?」라는 글에서 현대 사회의 글쓰기가 ‘표현’의 필연성에서 해방되었고, 따라서 이것은 글 쓰는 주체가 끝없이 사라지는 열림을 창조하고 있다고 했다.<sup>11)</sup> 표현은 다름이 아니라 낭만주의의 내적 질서가 아닌가. 기표의 특성에 의해 더 규제되는 것이 표현이다. 이것의 질서를 뒤엎어버리는 행위야말로 글쓰기에 있어서 작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전복의 아나키즘인 것이다.

플랑 바르트가 수십 년 전에 작가의 죽음을 이미 선언하였다고 해도, 작가들은 실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전히, 버젓이 살아 있다. 작가의 살아있음은 사실상 돈이 아닐까 한다. 돈의 유혹은 21세기에 이르러 또 다른 논리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작가들을 해코지하거나 또 다른 성격의 죽음을 부추기고 있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작가관을 정립하는 기준이요 잣대이기도 하다.

얼마 전에 미국의 이름 있는 편집자인 만줄라 마틴이 엮은 『밥벌이로써의 글쓰기(Scratch : Writers, Money and the Art of Making a Living)』가 번역된 바 있었다. 나는 이 책을 매우 흥미롭게 읽었다. 이 책을 읽는 중에 형성된 역발상 덕분에, 작가관의 폭도 내게는 넓어졌다. 글쓰기도 여전히 하나의 직업이고, 작가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일의 범주이다.<sup>12)</sup> 우리나라의 유시민과 같은 비문학 작가인 콜린 디키는 왜 작가가 돈에 초연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가 남긴 어록 가운데 가장 가슴에 꽂히게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돈에 개의치 않고 열심히 글을 쓰는 낭만적인 작가는 그 자체로 허구다.’<sup>13)</sup> 이언 매큐언 과 같은 동시대의 고급 작가도 경제적으로

11) 미셸 푸코, 권택영 옮김, 「저자란 무엇인가?」, 같은 책, 73면, 참고.

12) 만줄라 마틴 엮음, 정미화 옮김, 『밥벌이로써의 글쓰기』, 북라이프, 2018, 77면, 참고.

성공을 거둔 것<sup>14)</sup>을 보면, 문학사에 향후 남을 작품성도 푼돈이 아닌 목돈이 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작가의 죽음의 대가로 우리가 얻는 것은 독자의 탄생이라면, 이는 곧 문학의 죽음을 말하는 걸까? 얼핏 보기에 글쓰기의 문화도, 문학의 근대적인 제도 및 관습도, 작가의 존재 의미도 사실상 쇠운머리에 달한 것 같다. 저물녘의 언덕에서 쓸쓸한 쇠운머리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운 페이퍼 시대의 핸드-라이팅으로 인해 점차 종이들이 구겨져가고 있다. 컴퓨터 자판 두드리기는 수기(手記)의 관습을 상당 부분에 걸쳐 사라지게 한다. 비전문가의 젊은 작가들이 웹 사이트에 환상담이나 SF 등과 같은 장르문학의 텍스트를 올려 주목을 받으면 놀라울 정도의 독자층을 형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에서 독자로 문학의 지적인 권력이 옮겨져 가는 이 즈음에 있어서 물론 독자의 눈치를 보지 않은 작가란 생각할 수가 없겠지만, 이 시점에서 글쓰기의 환경이나 문학의 존재감이 급변하고 있다고 해도 작가의 전통적인 권위와 엄숙성이 적잖이 남아있다고 보인다.

#### 4. 문학교육의 향방에 대한 한 견해

한 동안 ‘석학과 함께 하는 인문 강좌’가 공개적으로 진행된 바 있었다. 초대된 학자들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몇 차례 진행하고는 원고를 정리할 충분한 시간을 거쳐 대부분 단행본으로 나왔다. 2011년에는 문학 비평가인 유종호가 초대된 바 있었다. 그 후에는 단행본 『문학은 끝나는가?』(2015)도 상사되었다. 내용의 대부분이 문학위론과 정전(正典)의 문체를 할애하여 둘러싼 해박한 응답의 책이었다. 여기에서 부수적으로 불거져 나온 것은 문학교육에 대한 몇몇의 소견(所見) 및 제언이었다.

13) 같은 책, 137면.

14) 같은 책, 351면, 참고.

대학입시 문제는 중고등학교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이상 그 문제부터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행 문학교육은 문학에의 초대가 아니라 문학의 기피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문학은 엄연한 언어예술이고 예술은 본시 매혹의 실체로서 사람에게로 다가온다. 문학의 매혹을 소거하고 따분한 기피 대상으로 만드는 데 학교교육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사지선다형을 비롯한 객관적인 문제 일변도의 출제는 실제 작품의 이해 능력 측정과 별 관련이 없는 주변적 사항을 물어서 학생들에게 헛수고를 부과한다.<sup>15)</sup>

유종호는 인용문의 내용과 관련해 백석의 시 「고향」과 그리스 신화를 대비해 설명하는 수능 문제의 출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한 청중이 질문한 것을 미루어보아서는 실제로 강의할 때는 일본 교토대학의 주관식 출제와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단행본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다.

문단의 원로인 그는 어릴 때 받은 문학교육의 경험적인 사례를 충분히 제시한다. 그는 해방 직후에 중학교에 입학해서 미국의 군정청이 만든 『한글 첫걸음』이란 전학년용 알팍한 간이 교과서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때 동요와 시와 시조를 접했다. 이 무렵의 경험에 비추어, 그는 문학교육이 ‘문학 작품 읽기의 권유’로 귀결한다고 보았다. 문학교육이 문학으로 가는 항방이라면, 그에게 있어서 그것의 수단은 두 수레바퀴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말 자체에 대한 예술적인 미감(美感)이며, 다른 하나는 상상력의 계발이다.

일부러 외우려 하지 않더라도 외워지는 시가 좋은 시임을 확인하게 된다. 이 작품이 일단 좋아지면 동시나 시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더 많은 작품을 읽고 싶게 될 것이다. 문학교육은 되풀이하지만 말의 매혹을 감득하게 되고 다른 작품의 읽기로 유도해야 할 것 같다.<sup>16)</sup>

문학은 원초적으로 언어예술이다. 초등학생들에게는 문학을 공부한다는 것

15) 유종호, 앞의 책, 103~104면.

16) 같은 책, 202면.

은 말의 흥미와 아름다움을 배우는 과정일 것이다. 특히 동시는 극도의 응축성과 언어 경계를 지향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문학으로 인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 수단이 된다. 또 하나의 수단은 상상력이 문학이 갖고 있는 막강한 힘이어서 문학교육은 응당 상상력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7)</sup> 그러나 상상력의 계발이라는 것이 그리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다. 아름다움에 감동하기는 쉽다. 하지만 감동된 아름다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다. 문학교육의 목표는 ‘내면화’이다. 내면화된 미적 감수성이 바로 상상력인 것이다. 문학교육의 현실은 학생들의 상상력을 점화(點火)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문학적 미적 감수성의 계발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도무지 감식력이 없고 빼어난 시행을 접하고서도 무감한 학생들은 의외로 많다. 반복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도 무감한 학생들의 미의식을 일깨우지 못한다…….<sup>18)</sup>

이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게 문학교육이다. 이것은 단시일의 가시적인 성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간에 제기되고 있는 문학의 위기와, 하나의 제도로서의 문학교육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유종호의 공개강좌를 끝내고, 몇몇의 전문가들과 청중들이 한데 어울려 심도 있는 토론 및 질의 응답이 있었다. 문학교육 부분과 관련이 있는 사항을 집약적으로 옮겨본다. 질문은 오생근, 신경숙(영문학자), 유성호 순으로 구성을 했다.

문 : 위기의 문학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선생님은 이러한 방법 중의 하나 로 문학 작품의 문학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올바른 문학교육이 필요하다 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답 : 문학교육을 통해서 문학 위상이 회복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문학 위상의 하락에 잘못된 문학교육이 한몫 단단히 하고 있다는 사태를 관여자의 한

17) 같은 책, 205면.

18) 같은 책, 225면.

사람으로 개탄하는 것일 뿐입니다.

문 : 위기의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은 문학교육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영 향력을 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행하게 되지 않을까요?

답 : 위기의식은 있었지만 문학은 문학교육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앞으로 그럴 것이란 말씀에는 대범하게 동의합니다. 그러나 (……) 문제는 영향력이 아니라 문학이 가지고 있는 형성력의 쇠퇴입니다.

문 : 예술은 향수자에게 즐거움을 안겨주는 것이 가장 커다란 존재 이유인데, 그 점에서 우 리 문학교육은 이른바 ‘향수의 능력’ 을 기르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답 : 좋은 작품을 많이 읽어보아야 감식력도 늘어나고 안목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토론과 질의응답<sup>19)</sup>

유종호는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기에 처한 문학을 위해 문학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문학교육을 통해서 문학 위상이 회복된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으며, 문학에의 위기의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교육의 영향력이 앞으로도 행하게 되겠지만 그 영향력이 문제가 아니라 문학이 가지고 있는 형성력의 쇠퇴가 문제라고 보았고, 학생들의 향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선 그들에게 좋은 작품을 많이 읽혀야 감식력도 늘어나고 안목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필자는 이상과 같은 전문가들의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보다는 한 청중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더 주목할 수 있었다. 그 질문은 다름이 아니라 ‘문학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문학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밝혀달라’는 요청인 것이다. 필자가 주목하는 데는, 미래 사회의 글쓰기와 문학, 혹은 문학교육에

19) 같은 책, 230~257면, 참고.

대한 총괄적인 응답에 대한 하나의 암시가 드러나 있어서다.

제트기가 등장하고 경구 피임약이 나온 1950년대에 사람들은 인터넷이 초래한 전자 민주주의 시대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압니까? 위상이나 위세의 부침은 있어도 문학은 계속 존속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대비해서 안목 있는 소수가 견재하도록 문학교육 을 계속해야지요. 그러나 그것도 가까운 장래의 얘기지요. 먼 미래는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 일 테니까요.<sup>20)</sup>

이상으로 보는 바와 같이, 유종호의 문학교육론은 이론적이라기보다 철저히 경험적이다. 문학교육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에서, 그는 필자에게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고의 성찰을 남기고 있는 것 같다. 문학과 문학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도구로 존재하는 것이다. 문학이 존재하지 않으면, 문학교육도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문학교육이 제대로 기능함으로써, 문학적인 위상의 하락을 막는 데 기여해야 한다.

## 5. 마무리 : 약론(略論) 및 전망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학위기의 바탕 위에서 미래 사회의 글쓰기와 문학, 혹은 문학교육에 대한 견해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연구의 진행 과정은, 목차로 제시된 바와 같이, 미래 사회의 글쓰기와 문학의 향방, 작가의 죽음에 반응하는 관점의 변화, 문학교육의 향방에 대한 한 견해 순으로 밝혔다.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 있어서 글쓰기나 문학의 향방은, 사이버공간에서 오픈 문화의 바람이 거세어짐으로써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글쓰기의 엄숙성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데서 가늠할 수 있겠지만, 작가의 권위가 도전을 받고 있다고 해도, 오늘날 글쓰기의 환경과 문학의 입지가 변화된 것이지, 글쓰기가

20) 같은 책, 274면.

쇠운머리에 달하거나 문학이 죽음에 직면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글쓰기의 문화도, 문학의 근대적인 제도 및 관습도, 작가의 존재 의미도 사실상 쇠운머리에 달한 것 같다. 비전문의 젊은 작가들이 웹 사이트에 환상담이나 SF 등과 같은 장르문학의 텍스트를 올려 주목을 받으면 놀라울 정도의 독자층을 형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에서 독자로 문학의 지적인 권력이 옮겨져 가는 이즈음에 있어서 물론 작가의 전통적인 권위와 업속성이 당분간 적잖이 남아있으리라고 보인다.

원로 문학비평가인 유종호는 문학교육을 통해서 문학 위상이 회복된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으며, 문학에의 위기의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교육의 영향력이 앞으로도 행하게 되겠지만 그 영향력이 문제가 아니라 문학이 가지고 있는 형성력의 쇠퇴가 문제라고 보았고, 학생들의 향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선 그들에게 좋은 작품을 많이 읽혀야 감식력도 늘어나고 안목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미디어 철학자인 빌렘 플루서가 1987년에 간행해 1998년에 우리말로 옮겨진 책, 즉 글쓰기에 대한 암울한 미래의 전망을 내포한 문명비판서 『디지털 시대의 글쓰기(원제 : Die Schrift : Hat Schreiben Zukunft?)』에서 미래의 작가가 본래의 작가 개념인 스크립터로 되돌아갈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여기에 담고 있다. 가장 창작성의 미학적 수준이 낮은 작가인 스크립터, 즉 스크립트 작가가 바로 미래 사회의 작가인지도 모른다. 물론 우리가 두루 예상하고 있는 대로 미래의 문명이 흘러갈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극단적인 전망을 내포한 작가관의 한 단초를, 우리는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다.

앞으로의 작가는 알파벳적 글쓰기의 종말과 함께 고대 그리스의 호메로스 와 소포클레스와 같이, 중세 남유럽의 음유시인들과 같이 말과 음향적이고 영상적인 부가 기능의 증충적인 구조로 스크립터로 되돌아갈 수 있다. 새로운 문학의 도래는 먼 훗날에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때까지 도달할지 모른다. 앞으로의 문학 연구 역시 문학의 미래에 대한 통찰에까지 미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 [Abstract]

#### The Writing and Literature of the Future Society, or the Education of Literature

Song Huibo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heoretically organize future society's views on writing and literature or education on the basis of a literary crisis.

The course of this study, as presented in Table of Contents, followed by a view on writing and literature in the future, a change in perspective of the writer's death, and a direction of education.

The future direction of writing and literature in a future society, although the author's authority may be challenged, is a change in the environment of writing and the position of literature today, and I don't think literature faces death.

The culture of writing, the modern institutions and customs of literature, is also facing change. Young writers of vision post text in genre literature such as fantasy stories and science fiction on websites and form a surprising readership when they are in the spotlight.

We do not believe that literature is restored through education. Despite the sense of crisis in literature, the influence of education will remain for some time to come. To improve students' nostalgia, they need to read many good works to increase their sensitivity and develop an eye.

**Key- words** : Future Society, Writing, Literary Crisis, Author-death, Literary Education

## 참고 문헌

- 김옥동, 『문학의 위기』, 문예출판사, 1993, 8~11면.
- 롤랑 바르트, 이승훈 옮김, 「저자의 죽음」, 계간 『현대시사상』, 1993년, 겨울, 69~70면, 73면..
- 만줄라 마틴 엠크, 정미화 옮김, 『밥벌이로써의 글쓰기』, 북라이프, 2018, 77면.
- 박인찬, 『소설의 죽음 이후 : 최근미국소설론』,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2008, 12면.
- 빌렘 플루서 지음, 윤종석 옮김, 『디지털 시대의 글쓰기』, 문예출판사, 1998, 241면.
- 석영주, 「맴핑 도스토예프스키 (18)」, 『S Magazine』, 583호, 5. 12~13, 15~17면.
- 송희복, 「외국 소설 속에 그려진 김혜의 여인: 허황옥과 백파선」, 『국제언어문학』 제 38호, 2018.
- 유종호, 『문학은 끝나는가?』, 세창출판사, 2015, 56면, 103~108면, 193~274면.
- 앨빈 커넨, 최인자 옮김, 『문학의 죽음』, 문학동네, 1999, 157면.
- 제이 데이비드 볼터 지음, 김익현 옮김, 『글쓰기의 공간』, 커뮤니케이션스북스, 2010, 118~330면.
- 제임스 A. 미치너 지음, 이종인 옮김, 『작가는 왜 쓰는가』, 예담, 2008, 95면.
- 황석영 외, 『문학의 미래』, 중앙books, 2009, 279면.

이 논문은 2018년 11월 20일 접수되어 12월 17일까지 심사받아 12월 17일 게재 확정됨.